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참가자들이 산림 치유를 체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서 힐링을

학생·직장인·임신부·치매 예방 등 체험 행사 본격 운영 휴양림·야영장·유아숲체험원...치유센터·정원 등 갖춰

해발 653m 해남 흑석산에서 복합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해남군은 계곡면 흑석산 자락에 있는 '흑석산 치유의 숲'을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흑석산 치유의 숲은 지난 2020년 조성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첫해 2158명과 지난해 1578명 등 2년간 3700명 넘는 이들이 흑석산 치유의 숲을 체험했다. 치유의 숲은 산림욕의 핵심 물질인 피톤치드가 풍부한 참나무 군락지에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유아숲체험원 등을 갖췄다.

산림치유를 위한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무장애 갑판길(덱 로드) 등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림청 주관 산림복지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의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체험도 진행한다.

'흑석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대상은 유아와 초·중·고교생(참숯 에듀 힐링), 직장인(참숯 해피 리프레시), 임신부, 중·장년층(참숯 해피 시니어) 등 다양하다. 가족 단위로 다도 명상을 하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참숯 해피 패밀리' 체험도 마련됐다. 청소년 참가자는 학업 피로를 해소하고 감수성을

형성하기 위한 숲 체험 활동을 한다.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치유 체험과 임신부 숲 태교,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한다.

체험 활동에서는 숲 향기와 아로마, 음이온 치료, 막대를 짚고 걷는 노르딕 워킹, 트레킹 등 다양한 방법과 요소를 활용한다.

체험 신청은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061-530-5734-5738) 또는 치유의 숲 홈페이지(heukseok.haenam.go.kr)에서 할 수 있다.

흑석산 치유의 숲을 담당하는 임종주 해남군 주무관은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객의 일상이 특별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드론나이트쇼' 공모사업 재선정

전남 시·군 유일...5000만원 확보 5월5-6일·10월6-7일 노을공원 해상W쇼 연계 야간 관광 시너지



지난해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에서 열린 '목포노을 드론나이트쇼'에서 박홍을 시장이 관람객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드론 나이트쇼 공모사업'에서 전남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목포시는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목포시는 올해 5월5-6일과 10월6-7일 북항 노을공원에서 '2023 목포노을 드론나이트쇼'를 연다.

대규모 군집 드론쇼, 공연, 드론 체험 공간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 진행된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드론 나이트쇼 공모를 2년째 벌이고 있다.

목포시는 제1차 발표 평가와 사업계획, 기대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해상W쇼와 드론 나이트쇼의 연계 효과를 통해 목포가 야간관광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북항권뿐만 아니라 대만동과 원도심 등 다양한 권역에서도 야간 체류형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사업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최종 선정

'영광형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전남도 2023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영광군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취약계층과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발해 다양한 실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 활동을 할 방침이다.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자격증 취득도 돕는다.

영광군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드론 산업으로 관광, 물류, 교통, 스마트팜 재배 등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부합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남 대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광이 드론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 1004섬 난 향기에 취하다

4년만에 춘란 전시...18~19일 신안국민체육센터

신안군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신안군 암태면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12회 1004섬 춘란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4년 만에 열린다. 신안에서 활동하는 8개 난우회 회원들이 정성 들여 가꾼 춘란 15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참가 회원들은 춘란 재배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신안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77종 가운데 18종이 자생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이 가운데 멸종위기 난과 식물은 9종이나 서식하고 있다.

명품으로 꼽히는 춘란 보름달(황화소심)이 배출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춘란 자생지로 자리



지난 2019년 열린 '11회 1004섬 춘란 전시회' 모습. <신안군 제공>

잡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전시회는 애란인들의 자생란 육성 의지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리"라며 "자생식물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다양한 투자와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lee@kwangju.co.kr

무안~목포 '100번 버스' 운행

무안읍과 목포터미널, 남약신도시, 오룡지구를 오가는 신규 버스 100번이 오는 17일부터 운행한다.

무안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무안읍부터 일로읍 오룡지구까지 36.3km 구간을 왕복하는 농어촌좌석 버스 100번을 운행한다. 개통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차고지에서 열린다.

무안군은 지난 9일 100번 노선 시승 운행과 사전 점검을 마쳤고, 15일에는 무안교통부와 공영버스 운행 협약을 맺었다. 이 노선을 운행하며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은 무안군이 지원한다.

100번 노선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운행한다. 평일(6대)에는 40분마다 하루 24회, 주말·공휴일(4대)에는 60분마다 하루 16회 운행한다.

버스 요금은 일반 2100원, 초·중·고교생과 청소년은 카드 결제 때 100원을 내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규 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군민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안전통시장과 남약신도시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박차

ICT 기반 응급 안전장비 설치·어르신 지킴이단 등 운영

완도군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특거노인 1075세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화재와 활동량 감지기인 응급 안전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응급 관리 요원 10명도 배치해 특거노인 안전망도 구축한다. 또 고독사 및 자살 위험도가 높은 도서 지역 거주 노인들을 위해 12개 읍면에 '어르신 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노인들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1대1 사례 관리, 사후 관리 등 대상자의 안부를 수시로 살피는 활동을 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 1432명을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구분해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안전 지킴, 생활 교육 등도 하고 있다.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 380명에게 주 1회(5일 분) 양질의 식사를 지원하고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청 노인에게는 보청기 구입비 최대 120만원을 준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